



정책위원장 초청 세미나 및 기도회

교단 총회 주최... 종교다원주의 배격, 교회와 나라 위해 기도

본 교단 총회 주최 '정책위원장 초청 세미나 및 기도회'가 지난 11월 19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 성전 대성전에서 전국 지방회의 많은 총회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총회원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종교다원주의와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사역할 것을 다짐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조용목 목사의 설교와 특강, 교단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합심기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특강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온상으로 복음을 환전하며 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오도(誤導)하는 WCC의 본질과 정체를 설명하고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이 사릴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WCC 종교다원주의를 철

저히 배격하고 공산주의자들처럼 거짓과 용어 혼란 전술로 성도들을 기만하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교회는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들추어 회개하기보다 현재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고 종교다원주의의 WCC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세속화를 단호하게 배격하지 못하여 거룩성을 상실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고, 엄중한 남북의 문제와 국가가 잘 되기 위하여,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존립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및 복음전파를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과 정책 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교단의 의미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며 세속적인 명성을 추구하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같은 성경관과 기독교, 같은 목회

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단에 속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다.

이날 총회원들은 우리 교단 총회원으로서의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역하며 복음전파와 구원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강 후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안녕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져 총회원들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되도록, 북한에 자유와 복음의 물결이 해일처럼 밀려들어 가게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이날 성회는 조용목 목사의 총회원들을 위한 축복기도에 이어서 교단 중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안녕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총회원들.

목회대학원 2018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 다짐

교단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8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11월 28일(월) 목대원 강의실에서 열려 한 학기동안 한학의 열정을 불태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대학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학원 교수 강대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목회대학원 이용주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빌 3: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크게 잘못되어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학생들을 축복했다.

이날 목대원 원우회장 박용진 전도사의 헌금기도,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광고,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목적’

조용목 목사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3~15)



조용목 목사

우리의 모든 행위에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희박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없는 경우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나 조직체의 모든 활동은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성격이 규정되어지고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송고한 삶의 동기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의 상상을 극하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그 넓이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 깊이가 시간의 제한을 넘어 영원하도록 깊습니다. 그 높이가 죄인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그 깊이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한 만큼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하신 십자가는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였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 권한다는 뜻인데 성경 원어의 뜻을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세찬 물결이 뒤에서 압박을 가하므로 아래로 떠밀려가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진리를 깨닫게 된 그 날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고 지배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고 말이 고삐가 끄는 대로 복종하듯이 바울을 자각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우며 송고한 삶의 동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또한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징벌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죄인들이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어두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그 열매를 먹고 난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은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 묻기를 “당신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신은 왜 그토록 필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합니까?”라고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일관하며 변함이 없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목회대학원, 총회신학교 2018학년도 사은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교단 총회 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8학년도 사은회가 지난 11월 28일(월) 오후 4시 목대원 만나실에서 열려 한결같은 사랑으로 원생들에게 말씀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격려했던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목대원 이용주 목사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더욱 사명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각오를 다진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믿으며, 바라기는 각기 목회 현장에 나가 자

기 뜻을 감당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원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졸업생들은 스승의 노래를 부르며 스승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랑의 선물을 증정했다.

이날 사은회는 목대원 교수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총회신학교 졸업생들은 11월 29일(목) 오후 쿠푸우우식당에서 사은회를 갖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서울 시청 앞 광장 2018 성탄트리 점등식

오는 2019년 1월 6일까지 불 밝혀

서울시청광장 대형 성탄트리가 지난 11월 17일(토) 오후 6시 '2018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에서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시민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 불을 밝혔다.

이번 성탄트리는 전체 높이 25미터, 지름 15미터로, 크리스마스의 밤하늘을 밝힌 별을 형상화했다. 기본 배경의 은하수 색상으로는 화이트 LED조명을 사용하였으며, 이 배경 위의 불꽃 장식은 희망과 축복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곳곳에 RGB은하수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다.

또한 트리 주변에는 별 포토존들로 장식하여 시민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점등식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단이 동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동메달리스트 서아라 선수와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대중 선수를 비롯해



서울시 안장물 과장, 서울경찰청 최명국 경감, 용인소방서 유정선 소방위, 한국군종목사단 노명현 대령, 택시선교회 박규남 장로, 여명학교 이흥훈 교장선생님과 아예연 학생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

치고 트리 점등 버튼을 눌렀다.

이울러 문체부 김갑수 종무실장 서울시 진성준 정무부시장, 주한 요르단 아말 아다 일레 대사, 주한 미국대사관 로버트 램슨 부대사, 국회조찬기도회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CTS 운영위원회 권오철 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CTS 공동대표이사 겸 기갑 전명구 감독회장 CTS공동대표이사겸 예상통합 총회 립형석 총회장, 한기종 엄기호 대표회장, 한교연 이동석 대표회장, 예상 박석총회 이주훈 총회장, 한교연 유만석 대표회장 등 기독교계 대표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축제가 100분간 진행됐다.

한편 2002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CTS기독교TV는 서울시청 앞 열린 광장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점등식 축제를 개최해 왔다.

우리사랑선교회 제17회 선교축제의 밤

총회도 갖고 국내외 선교사역도 보고



우리사랑선교회(총재 유연식 목사, 대표회장 오성숙 목사)가 지난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7회 총회 및 선교축제의 밤을 갖고 금년 한 해 선교회가 펼친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오성숙牧사는 “여러 동역자분들이 계셨기에 어렵지만 선교의 길을 걸어왔다.”며, “나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오牧사는 본격적인 선교보고에서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경찰청과 사찰을 방문해 문화선교를 통해 8명이나 교회에 등록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며, “복음전파를 위해 송아지 3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오牧사는 계속해서 “선교비 전달과 함께 캄보디아에 신학교와 초등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필리핀에서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겪어주는 한편 식량(쌀 5kg 500포대)도 전달해 사랑의 실천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오牧사는 끝으로 “내년 필리핀 블라파 지역에 기술학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장(개혁연합),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주님과 교단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연합)는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제103회 총회장 취임 및 임원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수석부총회장 현 베드로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서기 하정무 목사의 기도, 회의록서기 김동철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이강익 목사의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믿는 자는 충성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부총회장 한은자 목사가 나라 정치안정과 경제부흥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부총회장 조명숙 목사가 ‘총회 노회 지교회 부흥과 성장발전



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총회장 원만용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오늘 설교제목 ‘믿는 자는 충성하라’라는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교단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며, “총대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종 사무총장서리 윤덕남 목사의 격려사, (사)합동교단 총회장 김정환 목사의 축사, 총회장에 대한 취임패, 증경총회장에 대한 추대패, 수석부총회장에 대한 취임패, 임원들에 대한 임직패 전달 후 총회장 원만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미래목회포럼, 종교세 시골교회 지원 건의

제59차 조찬간담회 및 정책 포럼…박명수 교수, 복음주의적 연합운동 강조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 이사장 정성진 목사)은 제59차 조찬간담회 및 정책포럼을 지난 11월 12일 더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갖고, ‘한국교회 상생 위한 원

인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박종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희수 목사(공공정책본부장)의 개회기도, 김봉준 대표(아름김사랑교회)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봉준 대표와 박명수 교수(서울신대)가 △도시와 농어촌교회의 간 상생을 위한 실천 사례와 함께 실제적인 방법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상생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연합운동의 흐름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먼저 김봉준 대표는 지난 10월 28일 진행한 도·농간 갈등교류에 대해 언급했다.

김대표는 “전남 고흥군에 20명이 출석하고 있는 28년 된 갈릴리교회에 갔었다. 60~80대 이르신들이 있는 곳”이라며, “인근지역 인구수에 비해 다수의 교회가 있었고, 비교



적 규모를 갖춘 교회도 있는 주변 환경을 가진 교회였다. 하지만 젊은이가 빠져 나간 전형적인 농어촌 현실에서 목회의욕 상실감이 커 보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골교회에 대한 중대형 교회의 공동체의식이 적극 요구된다”면서, “지나친 개교회주의에 시골 교회가 방치된 상태로, 자칫 대형 교회에 대한 분노감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또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나라의 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시골 교회 목회자를 위로하고 사명을 되찾게 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했다.

이에 김대표는 도농간 갈등 교류를 통한 한국교회 원원 전략으로 △도농간 MOU를 통해 농산물, 해산물을 팔아줘 이익금 적립으로 넓은 교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축에 일조하는 것 △종교인 과세로 생긴 조세비용을 시골교회 지원에 위한 지원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 △승·대형교회 담임사례비 나눔(경제 정의, 소득 분배 차원에서) 등을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제23차 정기총회 성료

3개 단체, 신년하례 예배 등 행사 연합하여 실시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여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제1부 예배는 예상합동예장총회 총회장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예상기독교회 증경총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예상중앙개혁총회

총회장 박길순 목사의 성경봉독, 예상합동부흥총회 총회장 김권현 목사의 마 12:43-45절을 본문으로 한 “빈집을 채웁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광

용 목사(예장개혁신교회 부총회장)가, ‘(사)한기협발전을 위하여’ 이승권 목사(예장합동

개혁총회장)가 기도한 후 박형렬 목사(예장개혁교회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회부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의장 양정섭 목사(이사장)의 인도로 강희준 목사(예장개혁총회장)의 기도 후 회부처리에 들어가 절차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이사인 김영의 목사가 회원 점명하니 정경수가 되므로 의장이 개회됨을 선포하였다. 이어 절차보고와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이사장 업무보고와 총무이사서임보고, 재무보고 서경숙·김분희 목사가 감사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이사장에 양정섭 목사를 유임하고 이사에는 김권현·노종관·박형렬·강희준·최옥석·임정태·양성은·이영춘·서경숙·박광원·하용준·전대식·김영의 목사를 유임시켰다.



한국성결교회연합, 제8회 목회자 체육대회

연합회 회원교단 친목과 결속 도모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김영수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기독교시애틀성결교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주관한 ‘제8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목회자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15일(목) 오전 10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수안보생태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축구, 배구, 족구 세 종목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금년 대회에서 축구와 배구는 서로 이기고 지는 경기를 펼쳤으며, 족구는 나시렛 교단이 전승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윤성원 목사(기성총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김영준 목사(나성정보출판국장)가 기도에 이어 윤기순 목사(기성총회장)가 ‘성리의 면류관’(예 2:10)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나성 문화체육위원장(영덕교 목사)의 환영사와 각 교단 총무들(김진호, 이강준, 이관호 목사)의 내빈소개가 있었다.

또 개회예배 후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선수 선서, 개막선언, 시축이 있었고, 경기 후 이강준 목사(예성총무)의 사회로 드린 폐회

예배에서는 조병재 목사(기성선교소초연합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김진호 목사(기성총무)가 말씀을 전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회원교단인 기성, 예성, 나성 세 교단은 해마다 본 대회를 통해 연합회 회원교단 목회자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mom편한 아이들 놀이공간’, 거제도 20호점 개관

아이들 눈높이 맞춰 문화·놀이공간, 아지트 설계

롯데지주구세군과 함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mom편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mom편한 썬다락’이 거제도에 20호점(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을 열었다.

‘mom편한 썬다락’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락방 아지

트’라는 콘셉트를 적용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긴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를 친근하고 즐거운 문화놀이공간으로 느끼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친근한 원목 소재를 사용해 공간에 친밀함을 더했고, 방범조치와 안전 난간, 안전 모서리 시공 등 아이들의 안전

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수백여 권의 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음향시설을 설치해 ‘썬다락 문화공간’을 마련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PC를 지원한 ‘썬다락 ICT공간’이 썬다락과 함께 구성됐다.

19일 20호점 개관식에는 롯데지주 이종현 CSV팀장(전무),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 구세군자선비본부 광창회 사무총장 그리고 ‘mom편한 썬다락’ 20호점을 설계한 생활건축 강홍구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세군자선비본부 광창회 사무총장은 “12월이면 나눔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돼온 자선비부가 ‘mom편한 썬다락’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공간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도 편안함을 선물하는 나눔의 가치를 롯데지주와 꾸준히 공유하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회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11월 4일(주일)부터 6일(화)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목회자부부 수양회를 가졌다.

수양회 첫날인 4일, 50명의 회원들은 청주공항에서 오후 4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준비한 차량 8대에 조별로 나눠 타고 저녁을 먹고 힐링타운 호텔로 이동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째 날에 갈매 농장 체험, 김벌레해안 우도8경보트, 티보카 투명카 약제함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제주도 최상의 경관을 가진 bad2822 카페, 지귀도, 동백나무 울레집인 카멜리아 힐, 아트리움 공연장으로 이동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동문시장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짓고, 청해회집에서 맛있는 회를 먹고 렌트카를 반납하고 제주공항에서 저녁 10시 40분 비행기로 청주공항에 도착하여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회원들은 이번 지방회 부부 수양회가 여

유가 없고 바쁘게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너무 좋았으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양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증경 회장들 및 회원들, 그리고 모든 일정을 계획하며 회원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한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회원들은 2박 3일의 수양회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며 목회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것을 결심하며 각자 목회현장으로 돌아갔다.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16일(금) 오전 10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대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박정욱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대표기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롬 7:19-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라’는 제목의 설교,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회 교회의 부흥과 회원 동역자 모두의 건강함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였다.



순복음새벽별교회 이전감사예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0월 29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새벽별교회(담임 김인숙 목사) 이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윤두환 목사(은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이정옥 목사(산성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말씀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대하 7:1-3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벽별순복음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였던 장면을 상기시키며, 구약의 성도들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본 반면에 이 시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전제하고 “새벽별순복음교회 은 성도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찬미함과 아울러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을 기록한 희생제물로 드리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간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새벽별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했다.

이어서 조광선 목사(반석순복음교회)의 축사, 회계 김정순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의 헌환비 전달 순서 후에 새벽별순복음교회 김인숙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숭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때

마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구입, 리모델링을 하여 오늘 지방회원들을 모시고 이전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방회 증경회장 윤정원 목사(송전교회)의 축사와 축도로 이전예배를 은혜롭게 마친 후 새벽별순복음교회(담임 김인숙 목사)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하늘교회 창립감사예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11월 19일(월) 오전 11시 순복음하늘교회(담임 전정백 목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겸 총무 김정근 목사(영성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신혜예 목사(섬기는교회)

의 대표기도, 김정근 목사의 성경봉독, 유진용 목사의 특별찬양,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사 59:1-2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와 용서를 아는 집을 세우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회개를 통해 성결해지고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어 지역복음화에 합쓰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창립

및 취임공포, 최월성 목사(예수기쁨교회)의 축사, 서기 정진균 목사(흥민순복음교회)의 권면, 회계 이현숙 목사(리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박정현 집사의 헌금송이 이어졌으며, 담임 전정백 목사(순복음하늘교회)는 취임인사를 통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본 교회 창립예배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친히 오셔서 예배순서와 자리를 빛내주신 지방회 목사님들, 성도님, 가족, 친지 모든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하늘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원했다. 이어 증경회장 이창모 목사(국제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인내하는 목회자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11월 15일(목) 오전 11시 영광순복음교회(담임 민병훈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연재만 목사(순복음양강교회)의 사회로 옥백전 목사(소생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최동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약 1:1-4 말씀을 본문으로 ‘인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야고보 사도는 여러가지 시험 마저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내란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가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라며 성경에 기록된 인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하신 선물이다.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조숙희 전도사(순복음주름예교회)의 헌금기도와,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인도로 조재호 목사의 재무보고, 민병훈 목사의 회계보고, 교육위원회 내년도 수련회 계

획 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본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신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후 연재만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영광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인수 장로 초청 간증집회 및 경로잔치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17일(토) 순복음세움교회에서 한인수 장로 초청 간증집회 및 경로잔치를 가졌다.

경품과 선물을 무려 500만 원 가량 준비하여 간증을 들은 후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 게트마늄 목걸이, 2등 2명에게 게트마늄 팔찌 등을 경품으로 나누어 주고, 개인별 선물을 또 나누어 드리며 이웃의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접촉점의 계기를 만들었다.



부산지방회는 경로잔치를 통해 지역 복음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

며 격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말씀대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것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11월 19일(월) 꿈이있는교회(담임 김훈배 목

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양정석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담전 1: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공적인 사역자’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 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박상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2부 월례회를 통해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꿈이있는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김미연 전도사 목사 안수 임직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열린순복음교회(담임 김미연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피주지방회 박영진 전도사와 이상숙 사모님의 마음을 여는 은혜로운 예배 전

찬양에 이어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남순 목사(혈문산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정세창 목사(은혜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의 행 28:30-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복음의 증거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도바울은 찾아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그리

스도를 전한 것처럼 비율의 믿음을 받아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랑의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지방회 회계 표한자 목사(시냇가예심은나무교회)의 헌금기도 후에 2부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식은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집례로 김미연 전도사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이어져 정석현 목사의 서약, 증경회장인 안수위원 김기인 목사(반월교회), 최병일 목사(신원대일교회),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안수기도와 성의 착용 및 공포 후에 임직증서 및 임직패를 수여하고, 축사와 권면 순서를 가졌다. 최병일 목사와 총회서기 이정진 목사(다사랑교회)의 축사, 김기인 목사의 권면 후에 김미연 목사의 광고와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열린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이규호 목사

· 경기남지방회 중경회장
· 순복음동산교회

본문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

니다. 본문 12-13절에서 바울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

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당부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열심히 공부하여야 교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책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누구나 다 모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멋대로 읽고 해석하여 성경진리가 왜곡당하고 있으며, 각종 이단들이 창궐하여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어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도 불신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확신을 이웃과 서로 나누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환경적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야할 십자가는 결코 편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야 믿음만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며 최후 승리가자 되

는 것입니다.

둘째,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

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묵화의 은사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는 복음증거자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묵화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에게는 지혜나 지식이 힘이 아니요, 웅변이나 금언이 힘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자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실 때에는 형제와 더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요 7:5),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인정받은 지도자가 되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는 길

(딤후 4:11-16)

었으며, 니중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적인 감동으로 일하였습니 다. 그는 성소에 들어 가도록 허용된 유일한 인물이었는 데 항상 홀로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정과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역자가 됩시다. 이는 오로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능력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보이게 하라"는 것인

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맺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 성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식 참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기계적, 전사주의적 행위를 경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과인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내면에는 단일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행함을 강조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좌우로는 이웃들과 협력해서 일하면서 가시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사역에 들어선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적인 열매는 주어진 주님의 것이므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울사도의 교훈이며, 설교자의 간곡한 당부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공적인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을 일평생 잊지를 마시고 실천해서서 최후 승리가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 병역거부라 표현하지 마라. 역겹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나머지 3대 의무도 양심적 거부해도 되냐? 라며 불쾌해한다.

그리고 '리사'라는 네티즌은 '조국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인데, 다들 총 안 들겠다면 나라를 누가 지키나요? 예수님 바로 믿으면 이런 의식 갖지 않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영상스캐치'라는 네티즌은 '누구 덕분에 니들이 편하게 종교 믿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는지 아냐? 니들이 거부하는 그 영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지'라고 격언되어 있다. 그리고 '김돌팔'이라는 네티즌은 '군대 가는 청춘들은 비양심적아구나. 이게 나라냐?'며 따지듯 말하고 있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언론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때, 언론의 신뢰는 떨어지고, 뉴스의 가치는 추락하게 된다.

국민들은 현재 한국 언론의 수준을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언론들이 제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왜 우리 언론들은 다양성 시대에 전편일률적인 권력 눈치 보기의 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인가?

동 정

국가조찬기도회 수상달 회장 취임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1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신임 회장 수상달 장로취임감사예배를 개최했다. 두 장로는 한국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 CCC 나사렛교회들 중앙회 회장, 기아대책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가정문화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임창호 회장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김남예)는 지난 11월 17일(토)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수석 부회장인 고신대 임창호 교수

를 제35대 회장에 선출했다. 임 회장은 "실천적 기독교교육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학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관계와 기독교 심포지엄 열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 총연합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교회역사위원회 위원장 박명수 목사)은 22일(목) 오후 1시, 서울신학대

학교 우석기념관에서 한미관계와 기독교 특별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1부 심포지엄에서는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학교)가 「태평양전쟁 시기의 이승만의 대미 외교 활동에 미친 제랄딘 피치(Geraldine Fitch)의 역할」을 발제하고 김용직 교수(성신여자대학교)가 논찬하였다.

제11회 사랑의쌀 나눔대상 시상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지난 11월 24일(토) 오후 3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제11회 사랑의쌀 나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상은 사랑의 쌀나눔처에서 노인, 쪽방촌, 노숙인 등 소외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시상하였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SBS 방송,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것인가?

지난 11월 11일 SBS 방송에서는 8시 뉴스를 통하여 "병역 면제 노리고 신도 급증?"이란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다. 이는 지난 11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에서 소위 양심적(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안보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우려하기를 앞으로 젊은이들이 특정 종교로 몰릴 것을 염려한 것에 대한 반발성 뉴스이다.

대법원에서는 양심의 판단 근거가 모호한 것을 신중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 종교의 주장에 손을 들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감당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SBS 방송에서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이라도 하는 듯 특정 종교에게로 병역면제를 노리고 신

도들이 몰려가지 않고 있다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는 무시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이다.

어찌 10여 일 사이에 특정 종교로 사람들이 몰려가겠는가? 적어도 1년이나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추이를 보면서 보도해도 늦지 않을 터인데, 마치 그 특정종교를 지지하거나 권력층을 두둔하는 모양새로 뉴스를 내보낸 것이다.

국가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좀 더 현실감 있는 보도는 못 할망정 어찌 보면 경망스러운 정도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지하려는 태도를 보일까?

이날 SBS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특정 종교 여호외증인을 변호하는 듯한 태도이다. 마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에 대한 여호외증인들의 생각하

는 바를 신속하게 알리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어쩌면 요즘 흔한 '가짜뉴스'를 보는 듯하다.

특정 종교의 주장을 따라 대체복무제도 입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무죄'가 될 때 특정 종교로 젊은이들이 몰려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15일과 16일 사이에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에서 '이해할 수 없다'가 66.8%였고, '이해할 수 있다'가 26.6%에 불과하였다. 특히 군대에 가야 할 19-29세 사이의 젊은이들도 63.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된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시에 종교(여호와

증인)를 전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77.1%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군에 입대해야 할 연령대인 19-29세 사이에서는 21.1%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즉 군에 입대해야 할 젊은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SBS 방송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특정종교를 대변하는 듯한 뉴스를 편성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도 조급한가?

이 뉴스를 보고 네티즌들이 댓글을 단 것을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아이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은 '용어부터 바꾸자.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 피딱 흘리며 군복무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었냐?'라고 항변한다. 또 'chaplinupost'라는 네티즌은 '종교를 팔아서 양심을 저당잡아 군대 안 가려는 종교적 병역거부, 양심

http://agpgs.aogk.org

2019 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장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장장식) 1부
- ⑤ 반영합된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목양강좌 / 성경으로 현대신학사상 분별하기 ❷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으로 간다”

에밀 부르너(1889-1968)는 그리스도론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위기의 신학”이란 명칭이 생겨났는데, 이는 하나님이 위기 때에 인간을 만나주신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리인홀드 니버(1892-1976)는 는 자유주의의 낙관론을 반대하고, 죄에 뿌리를 둔 사회 불의를 고발하였고, 사회복음에 역점을 두었다. 그밖에도 죄를 재정의(再定義)하였다(과학과 기술로 표현되는 힘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될 때 죄가 생겨난다). 그는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원죄교리뿐 아니라 아담의 역사성과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다.

루돌프 볼트만(1884-1976)은 성경의 신빙성을 부인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 가르침 보다는 교회의 주관적 견해로 매워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생각은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볼트만주의라 불리는 이 견해는 신정통주의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2) 신정통주의의 주요 특징

(1)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의 초점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3)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성경의 사건들은 “역사”로서의 히스토리예(historie)가 아니라, “이야기”로서의 게쉬히테(geschichte)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이 시간과 공간 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신화”요 “전설”이라는 사실은 그것들의 높은 의미와 타당성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4)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전적인 타자”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선풍한 간격이 존재한다. 인간은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정통신학의 하나님은 고정된 언약과 고정된 복음을 통해 인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3) 정통주의 신학에서 본 칼 바르트

(1) 성경은 무오(無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심지어 그들의 직분에 있어서도, 심지어 증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심지어 그들의 증거를 기록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실제, 역사적 인간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죄가 있고 그들의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범했다” (교회교의학, Church Dogmatics, I, ii, p 528, 529).

(2) 바르트는 창세기 1, 2 장은, 이야기(게쉬히테, Geschichte)라고 주장하였다:

“창조 자체는 신화로 언어되지 아니하므로 창조신화라는 것은 없다. 예를 들면, 바벨론 창조신화에서는 이 사상이 밝히 나타나 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생성과 소멸에 관한 신화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창세기 1, 2 장은 전연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가 있지만, 성서에는 신화에 비할만한 것이 전혀 취급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성서의 이야기(게쉬히테)에다가 이름을 주어 한 범주에 넣는다면, 전설(sage)이란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지식 밖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이야기(geschichte)에 관련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말한다.

성서의 창조이야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성서의 창조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설화 또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Geschichte)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약 성서에 의하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한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설명은 확실히 구약성서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1장의 설명은, 안식일 제도에서 언약이 창조사역의 목표(目標)임을 보여주며, 2장의 설명은, 언약이 창조사역의 계속임을 보여준다.” (교회교의학 개요, 51-51 페이지)

(3) 아담의 타락을 사기(전설)라고 주장하였다: 칼 바르트(교회교의학 IV, i, p508)에 의하면, 창세기 3:1-7의 기록은 단지 전설(sage)이다.

(4)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동정녀 탄생을 불신하였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회 중에서 이제껏 또 언제나 거리낌이 되는 장소의 하나, 그 유일한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껏 설명한 데까지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하는 초조한 마음을 품고라도 잘 따라왔지만, 이 항목에 외서는(이제 취급하려는 것은 나의 발견이 아니고, 교회의 고백인데) 여

러분들은 무언장지(無言停止)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으로 그것을 납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안정 하게 길을 걸어왔듯이, 같은 안정과 사실에 충실함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구절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 항목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의를 품고 진리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가?” 라는 불안한 질문이 최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기쁨으로 긍정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최후로 남는다. (교회교의학 개요, 95 페이지)

“이것이 탄생의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없이 출생한 기적이다. 그것(기적)이 종교사 중에 있는 비와 같은 인간이 신들로 말미암아 수태되는 신화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출생은 문제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로 등장하여 그 동정녀의 상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초대예수가 여기서 성적과정(性交)이 상관없다는 것을 재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출생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구에서 실현되었다고, 흔히들 말한다.” (교회교의학 개요, 99 페이지)

(5) 몸의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였다: 부활은 이 생명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앞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가지는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후의 생인가? 죽음과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인가? 마치 벌이 나 나비와 같이 영원불멸의 생을 누리기 위하여 무덤 위를 날아다니는, 그리고 어디엔가 보존되어 있을 영혼인가? 사후의 생을 바라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다.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성경 말씀 중에서 육체는 단순히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즉 죄 아래 있는 인간, 낮은 인간을 말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 살아 있는 이생명의 연속을 의미하지 않고, 이 생명의 완성을 의미한다.”

(교회교의학 개요, 154 페이지)

(6) 바르트는 인간이 유한하여

조절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가 부활묘사에 대한 글을 주의 깊게 읽거나, 그 기록들을 다른 비슷한 묘사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부활묘사에 대한 기록들은 아주 조심성 있게 그리고 억제당한 상태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제자들을 자극하고, 제자들이 묘사하기를 원했던 것은 사건 자체의 이적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 (교회 교의학 4권, 2부, 148 페이지)

(8) 바르트는 앞의 인용구절에 연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자들은 기적에 관한 믿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비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깨어난 새벽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자신들이 인정하려 했을 뿐이다. 즉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주님으로 승인하게 하여준 사실을 입증하려 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어 있는 제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준 신비로운 사실을 제자들이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살아있는 주님의 인재를 입증하려 하였다.” (교회 교의학 4권, 2부, 148 페이지)



에밀 부르너(1889-1968)는 그리스도론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위기의 신학”이란 명칭이 생겨났는데, 이는 하나님이 위기 때에 인간을 만나주신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9) 바르트의 부활주석(행1:1-14)이다.

“제자들은 확실히 실제적인 부활 장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승천장면에 대하여 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라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1:9). 우리는, 이 말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라는 말을 더 첨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진술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있다는 주장을 암시(暗示)하며, 그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암시일 뿐이다. 이것을 거꾸로 밀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암시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추상적(抽象的)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이러한 추상정도는 받아드릴 수도 있고, 내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비신화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행위는 그 어느 것 하나 도 성서 본문과 성서 본문이 증거하는 비를 이해함에 있어서 적당한 방법은 아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식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교회 교의학 4권, 2부, 148-149 페이지)

(10)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육체부활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폈다.

“만일 사람이 부활절을 어떤 소생 즉 피조물의 생 속에서 일어난는 일 곧 봄이나, 인간이 새벽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것에 관계시킨다면, 이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봄에는 겨울이 따라오고, 아침 기상에는 밤에 지는 일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신구(new and old)의 주기적인 변화와 같은 이야기기가 아니고, 부활절에 단번에 성취된 새 변화를 말한다.” (교회 교의학 개론, 122 페이지)

4. 급진 신학

많은 현대 신학들은 전통적 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1) 앙식비평

루돌프 볼트만(1884년-1796년)은 하이데커의 철학(실존주의 - 존재의 규범을 신약학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급진적 본문비평”이 탄생하게 되었다. 볼트만이 개발한 방법론은 “앙식비평”이라 불리는데, 볼트만은 복음서 기록을 “실제 역사적 사실 보다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진리를 묘사하는” 신화들의 모음집이라고 결론지었다. 신학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비신화화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복음서 기록에 덧붙여 놓은 신화들을 빗겨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트만은 신약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약성서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신화에 대한 재해석이며 비신화화이다.

신약성서에 대한 볼트만의 실존론적 해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분석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신약성서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신화적인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것을 비신화적인 용어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화적인 성격과 역사적 성격, 양면을 지니고 있다.

볼트만은 신화적인 언어는 과거 사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빈 무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를 운영하였는데, 그 신학교는 나치에 의해 폐교되었다. 본회퍼도 공공연히 연설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 1988년에는 히틀러 제거계획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1939년 본회퍼는 잠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다시 독일에 돌아가 나치 대항세력에 가담하였다.

1942년 본회퍼의 책은 출판이 금지되었고, 1943년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가장 인기 있는 저서인 옥중서신을 기록하였다. 1944년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폭탄계획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자, 1945년에 본회퍼는 교수형을 당하였다.

(1) 세속적 기독교 신학의 교리적 주장

그리스도론 : 본회퍼는 독창적인 사상가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칼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본회퍼에 있어서 “종교”라는 용어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뿐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존재하는 자”요 “그의 교회 내에서, 그의 말씀 내에서, 가질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고 불렀다.

본회퍼는 그리스도가 세속적 삶 속에서 활동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종교적 세상에서 빠져 나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신다.

그는 인간들과 대면하시되, 회개, 믿음, 회심, 중생, 성화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불경한” 태도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신다.”

이는 본회퍼가 사용한 극단적 용어들 중 일례인데, 이로 인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다.

교회론 : 그의 저서인 “옥중 서신”에는 회생과 훈련에 대한 본회퍼의 강조가 잘 나타나 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처음 시작 될 때, 교회는 모든 재산을 공평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목회자는 회중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에만 의지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직업을 종사할 수도 있다. 교회는 일상적 인간생활의 세속적 문제에도 참가하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돕고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한다.”

종교 없는 기독교 : 본회퍼 신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그가 종교 없는 기독교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궁극적으로 해석하여 “궁극적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삶을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제자의 도리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렇다면 ”종교 없는 기독교”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훈련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의 과격 신학자들도 종교 없는 기독교에 관한 본회퍼의 언급에서 자극을 받았다. 그들은 본회퍼가 “성숙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본회퍼는 “신성”과 “세속”의 개념을 거부하였다. 그는 “신성한” 영역에서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인간은 이전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던 문제들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독립성을 보면서, 본회퍼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이라 불리는 작용 기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분명히 본회퍼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중적 개념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체계화시킬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가 갑자기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 작용기설 : 연구를 손쉽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우는 가설. 실험과 관찰 때위로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의 대조를 통해 보다 고도의 이론이 확립된다.)

(2) 세속적기독교 신학의 요약과 평가

본회퍼의 신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사상을 좀 더 온전히 발전시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데 있다. 그가 남긴 많은 언급들은 분명히 수수께끼이다. 본회퍼는 칼 바르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변증법적 신학을 따랐다. 이러한 사실은 본회퍼의 글에 나오는 여러 “모순적” 언급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의 언급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세속적인 “사신 신학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을 강조한 본회퍼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다. 결국 인간의 성숙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 그의 글들은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성경의 부르심(예컨대, 고후 12:9-10)에 거스르는 역할을 하였다.

3) 사신 신학 (Death of God Theology)

사신 신학의 뿌리는 프리드리히 니체(1844년-1900년)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토마스 알타이저(1927년- 는 니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은혜를 알고 겸손한 충성된 일꾼 다짐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11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초심교회(담임 김희자 전도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차재현 목사(엘벤엘호동교회)의 사회로 박은선 목사(순복음열방선교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정운기 목사(대전양부리교회)의 마 20: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시간적으로만 보지 말 것을 말하면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란,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겸손하여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말한다"면서 "구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겸손과 감사함으로 결단하여 끝까지 충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안전자 목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김형사 목사)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이마순 목사) 합심으로 기도한 후, 염근자 목사(축복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김병목 목사의 헌금축복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김병목 목사 주재로 월례회를 가진 후에, 초심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영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영화를 관람하고, 잔치국수가 있는 화목한 교제를 가진 후, 각자 지역의 자리로 돌아갔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k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중고등부학생용교사용은 별도로 발간인함 : 3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용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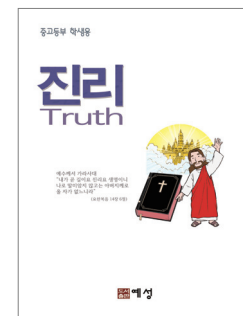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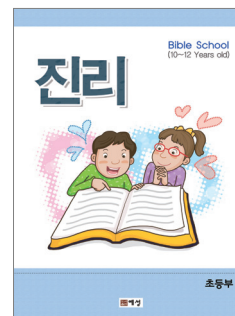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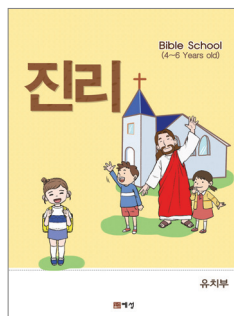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중고등부 공과교재

- ① 컬러풀한 삽화와 만화가 삽입되어 있음
- ② 주제별로 구성되어 신앙관 정립을 도와 줌
- ③ 문화적인 이슈와 교회사를 다룸으로 가치관 정립을 도와 줌



공과신청

- ① Fax : 02)2677-5181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 2018년 12월 3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화제의 신간 / 영적회복을 위한 비밀 열쇠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돌아봄의 시간

〈하나님의 미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좌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항상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끼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 강조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머리말 중에서
구입문의 (063)625-06902018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 6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8년 11월 29일(목) 17:00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용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발원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재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이창제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양민 목사 (목장제일교회)	임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영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발원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총무	상임총무	상임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제무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연천순복음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원교회)	김건수 목사 (세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인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발원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박종열 목사 (오성사당교회)	성기창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동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남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 (영복한성교회)	이희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송리교회)	홍현자 목사 (서광대평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수 목사 (예수향기교회)	김남수 목사 (발은빛교회)	최수수 목사 (순복음스밍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 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초록리본 만들기 통해 장기기증 이해 도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가 지난 11월 10~11일 서울광장 및 무교로 일대에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를 갖고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전했다.

'나눔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의료 관련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들과 함께 생명마을에 부스를 차리고, 1991년 이후 27년째 전개 중인 장기기증운동을 소개했다.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OX퀴즈 등을 함께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고, 방문객들이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리본과 각막기증을 알리는 팔찌를 직접 만들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양일간 모두 294명의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나희(희) 여사 등도 본부 부스를 찾아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부스에서 서약에 참여한 한 시민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각종 체험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은 만큼, 주변에도 생명나눔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몸도 마음도 살릴해지는



이때,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널리 알려져 사랑의 온정이 가득한 연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는 새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

금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나눔 축제로 본부를 비롯한 80여 기업 및 나눔 관련 NGO, 정부기관 등이 참여했다. 참여 단체들은 나눔 성격에 따라 생명마을과 사랑마을, 희망마을, 감동마을, 나눔교육마을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12월 13~16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송정미 콘서트'

독보적인 CCM 아티스트 송정미의 모든 것 보고 들을 수 있는 무대 선보일 예정

미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울리는 특별한 목소리로 한국 교계는 물론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크게 사랑받아 온 CCM 아티스트 송정미가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3일(목)부터 16일(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송정미 30주년 콘서트 The Voice>를 개최한다. 국내 최고의 공연 스태프들이 참여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오직 주만 이>(Anointing-기름 부으심)<축복송> 등 송정미의 대표곡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송정미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뮤직드라마 '송정미 스토리' 등 그녀의 목소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송정미는 1988년 데뷔한 이래 6장의 정규앨범 등 총 200만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한, CCM계에서는 매우 드문 밀리언셀러 아티스트. 특히 다양한 대중음악 형식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한국 기독교 내에 지금과 같이 인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저작곡 <축복송>이 교인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까지 사랑 받으면서 CCM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서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쯤을 위로하고 축복하



는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의 <축복송>은 현재 전 세계 16개국 언어로까지 번역돼 불리고 있을 정도.

또한 송정미는 CCM 아티스트로서 유일하게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등 대한민국 대표무대들에서 모두 공연하며 전회 전석 매진시키

는 진기록을 세운 바 있다. 2015년에는 조용필, 패티김, 인순이, 이선희, 김범수에 이어 6번째, CCM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입성해 가장 큰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 2800석 전석을 매진시키면서 음악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열고 있는 송정미의 대표 공연 <크리스마스 인 러브 Christmas in Love> 역시 한해도 빠짐없이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 중이다.

<송정미 30주년 콘서트 The Voice>라는 타이틀을 거 이룬 공연에서는 <오직 주만 이> <Anointing-기름 부으심> <축복송>을 비롯한 송정미의 대표곡들을 다수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던 첫 순간부터, 그녀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전 세계를 다니며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왔던 지난 30년의 시간을 담은 뮤직드라마 '송정미 스토리' 등 송정미 목소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한국 CCM계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송정미 목소리의 또 다른 꿈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새로나온 책

임종수 목사의 품성교육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한국품성교육원 원장 임종수 목사의 품성교육 시리즈 신간이 출시되었다.

생명 공동체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정체성을 서술하였으며 한국교회에 처하고 있는 문제점과 재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제도과 서리집사 제도와 명예직분과 원로와 총회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단은 충들을 통해서 온다

기독교의 7대 악과 7대 선에 대해서 논하였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 중에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곱 개를 꼽은 것이다. 7대 악은 교만, 시기질투, 분노, 나태 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이다. 7대 선은 순결, 절제, 자선, 근면, 인내, 친절, 겸손이다.

성령운동과 영성운동

작금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를 혼돈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다. 성령운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수직적이다.

성령을 받는 일에 인간의 행위나 과거가 어떠한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거쳐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영성운동은 나의 품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살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살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영성운동은 수평적이며 지력운동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운동이다. 성령은 깨지 못한 자아의 고집, 주먹다짐, 거짓말, 비방, 게으름, 분노, 고소, 고발 등은 영성운동을 통하여 교정할 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고난주간의 특제용이다. 시순절의 유래와 개신교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조명하였다. 가장 7연도 해설하였다.

강의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그룹

책 구입처

o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61-0771-1742-13
한국품성교육원

굿네이버스, '좋은이웃 플리마켓' 서울편

배우 유진, 개그맨 박성광 등 셀럽들 애장품 기부로 참여

지난 11월 25일(주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좋은이웃 플리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좋은이웃 플리마켓'은 가치를 나누고 변화를 만드는 취지로 진행되는 굿네이버스의 대표 기부형 플리마켓으로써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수익금의 30% 이상이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기부되는 연말나눔 캠페인이다.

지난 해 연말에는 '희망트리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인 전현무, 축구선수 이동국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좋은이웃 플리마켓'으로 리뉴얼되어 진행되었다.

올해 행사에는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70여 개 팀이 셀러로 참가하며 베이커리, 유아용품, 수공예품 여성류 등의 제품이 판매되었다. 특히 좋은이웃가게존에서는 좋은이웃가게 회원들이 셀러로 참여해 나눔에 함께 동참했다. 물론 판매 외에 셀럽들이 기부한 애장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배우 유진, 김구리를 비롯해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 중



인 개그맨 박성광과 스타일리스트 한해연, 모델 겸 배우 변정수 등이 애장품 기부에 동참했으며 애장품 당첨지는 '스타 애장품 럭키드로우'추첨 시간을 통해 선정하였다. 플리마켓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즐길 거리를 마련되었다.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당일 참여자들을 위한 체험존을 마련해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이벤트존에서는 당일 촬영한 행사 사진을 SNS에 인증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도 제공하였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역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사)예장총연, 제1회 정기총회 성료

대표회장 김태경 목사, 부대표회장 이강익·김승자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경 목사/이하 예장총연)는 지난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소재 서울햇빛중앙교회(담임 김승자 목사)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김태경 목사를, 부대표회장 이강익 목사, 김승자 목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을 선정하고 단체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부대표회장 이강익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김태경 목사의 인사, 수석상임회장 손대영 목사의 대표기도, 개혁예장총회장 김미량 목사의 특송, 부대표회장 김승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승자 목사는 왕상 18:41-4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순종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전파했다.

김 목사는 또 "죄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직 연합하여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십자가를 지는 연합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국가와 통일을 위하여' 합동제일총회장 유연식 목사가, '국가지도

자를 위하여' 마리아타총회장 김베드로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예장총회장 강주원 목사가, '예장총연을 위하여' 사무총장 강사랑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된 예배에서 기독교국제선교협의회 이사장 최창일 목사·개혁연합총회장 원만웅 목사는 축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회원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김태경 목사의 축도에 이어 2부 회무처리는 김태경 목사의 인도로 개회사, 부대표회장 김승자 목사의 기도, 개회선언을 한 후 회순제택, 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등을 받은 후 임원발표가 있었다.

회무처리는 계속해서 대표회장의 인사에 이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기타 안건은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인원은 98명으로 발표됐다.

△대표회장 김태경 목사 △부대표회장 이강익·김승자 목사 △수석상임회장 손대영 목사 △상임회장 김형영·간수웅·강주원·이영근·유연식·정진조·조성원·김기관·조명숙·최창일·이종국·김옥신·김미량 목사 △사무총장 강사랑 목사 △서기 김정옥 목사 △부서기 박준범 목사 △회계 김우태 목사 △부회계 이현옥 목사 △감사 최수영·박명애 목사

24시간 찬양과 말씀 “우리는 JOY입니다”

CTS라디오JOY 홈커밍데이 개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앱(APP) 라디오방송 CTS라디오JOY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동역자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스마트폰 앱 방송 <CTS라디오JOY>는 19일 노랑진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50여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배와 함께 지로드코리아 강명준 사장의 환영사, 사역보고, 이벤트, 점심식사 및 교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홈커밍데이에서 말씀을 전한 브라이언 박 목사는 "신한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며 미디어 사역을 하는 이분들이 더욱 자부심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직에 참여하고 있는 이임열 전도사는 "함께 라디오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한자리에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 좋았고 생명력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이 세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CTS라디오JOY는 무분별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격월 진행되는 <조이 캠퍼스>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 발굴에 더욱 힘을 예정이며, 2019년에는 프로그램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기독교 콘텐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찬양사역자의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는 <조이 라이브>, 취향별 찬양을 선곡해주는 <이럴 땐 이

런 곡>, 각 교회 예배의 특송 영상을 VOD로 제공하는 <예배특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개국한 대한민국 대표 앱 라디오 방송 <CTS라디오JOY>는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종합채널과 CCM, 복음성가, 말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크리스천 사역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CBS 목회자아카데미 공개컨퍼런스 개최

‘교회세움의 비전과 미래’ 주제로 12월 4일 광림교회서

CBS(시장 한용갑)가 ‘CBS 목회자아카데미’ 출범을 맞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컨퍼런스는 12월 4일 오후 2시 광림교회 컨벤션홀에서 21C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을 강사로 “교회세움의 비전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최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교회세움(Church Planting)에 대한 강의와 함께, 성경적

교회와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목회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과 문의는 CBS 선교국(02-2650-7792)으로 하면 된다.

CBS는 이번 공개컨퍼런스에 이어, 내년 1월 목회자아카데미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CBS목회자아카데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목회강좌 커뮤니티로, 한국교회 위기 극복과 본질 회복,

차세대 리더 목회자 발굴과 목회전문성 개발, 건강한 교회와 영적 리더십 세우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 세미나와 특강 등을 통해 목회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와 자료를 제공한다.

또 멤버십 집중세미나와 목회계획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CBS 주요사역에 대한 홍보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정말’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다가와

임마누엘 기도원교회 원장 문종복 목사가 박영수 목사를 초청, 가족세트 전도 컨퍼런스 및 은사집회를 연다는 연락을 주었다.

그때 우리는 남편의 위암수술로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주재인 가족세트 전도 컨퍼런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도 집회 보다는 은혜만 받고 쉼을 갖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레도 저녁에는 은사집회가 있으니 하루만 있기로 약속을 하고 참석했다.

첫날부터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박영수 목사의 전도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박영수 목사의 모습에 '정말 저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둘째 날, 집회가 끝나고 은혜 받은 분들의 식사 섬김이 있어 식당으로 모두 가게 되었는데 박영수 목사는 그곳 주인에게도 전도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본건만 이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받고 축복 받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이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준비를 해야 한다

며 나중에 한다고 핑계를 댈 법도 한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순한 양 같이 머리를 숙이고 따라하고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줄줄 불러주며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도 하고 한주에 한번 씩 사업장에서 예배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일가에 기쁨이 넘쳐 식사준비를 하여 섬겨주고 나갈 때는 사진도 함께 찍고 축복(교제)도 붙였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그날부터 남편의 모습도 점차로 좋아지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돌아오는 날에는 오랜 투병생활을 잊어버리고 곁에 묻든 단풍을 보며 돌아왔다.

박영수 목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영접기도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이런 전도의 능력이 생긴다며 매일 반복훈련을 하라고 하였다.

나는 아침마다 QT를 하고난 후 손을 들고 연습에 임하고 있다. 또 남편은 집회에 다녀온 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늘 말하고 있다.

강릉에서 김동숙 권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요 3:21)

♡♡ 모시는글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할 때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힘써 오신 여교역자님들을 위해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올림 -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 낮 12시~오후 5시

장소 일산벤엘교회(조영란 목사 시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64 (지번: 탄현동1491-4)
(전화 031-922-5004, 010-7477-8018)

일정 1부 예배 및 기도회, 2부 지부별 볼링(준비물은 공문을 참조바람)
대상 전국 여교역자 전원
문의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010-2853-8190), 차장 김바울 목사(010-8652-9340)
후원계좌 농협 352-1333-4784-13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각 지방회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류접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서류심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웅재 고시위원장 목사 김인규
총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입장문 ③

에스더기도운동, “[한겨레신문] 규탄한다”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보도와 관련 조목조목 반박…법적 대응 밝혀

8.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닌 에스더와 청년 극우 활동가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했다는 한겨레의 보도:하위사실임 에스더는 태극기 집회 대신 매주 자체 국가기도모임을 가진. 에스더가 태극기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가짜뉴스임.

9. “에스더로 대변되는 이른바 ‘미디어 선교’ ‘인터넷 사역’ 집단이 ‘넷(Net)우익’을 넘어 한국 극우주의 행동 대열의 새로운 주력으로 떠오른 것” 이라는 한겨레의 보도:하위사실임. 에스더에서의 미디어 선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행동 대열의 새로운 주력이라고 결코 볼 수 없음.

10. “에스더가 만들어내 기독교에서 유행한 말 이 바로 ‘종북 게이’다”라는 한겨레의 보도:하위사실임. 에스더에서 ‘종북 게이’라는 말을 만들지도 배포하지도 않았음.

11.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내가 바로 선민이며,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겠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 가 이루겠다” 등의 승리 서사를 강조하며 그들을 우익으로 양성했다.”는 한겨레의 보도:하위사실임. 이와같은 내용이 언급된 적 없으며, 에스더에게 극우 프레임은 덧씌우려는 ‘가짜뉴스’임!

12.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에스더의 또 다른 축”이라고 표현한 것:하위사실임. 김성욱 대표는 에스더 스태프가 아니며 시민단체를 독자적으로 운영.

13. 에스더에서 10년 여간 활동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며 “에스더의 목적은 특정 정치관을 가진 청년 세력을 양성해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편향된 자료나 심하게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들고 배우기를 지속하다 보면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터져도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고 계속 따르게 된다.”는 한겨레의 보도:하위사실임. 특정 정치관을 가진 청년 세력을 양성한 적 없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방하지 않는다. (에스더 홈페이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공지를 참조)

14. “인터넷 사역자와 미디어 선교사의 핵심 역할은 댓글을 달고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것”이라며

“에스더는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청년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댓글부대’를 양성했고, 이용희 대표를 정점으로 한 기획실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에스더는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등 인터넷 유관단체를 설립하고, ‘홀터데이 인터넷 전사’로 명명한 청년 수십명에게 가짜뉴스 배포 등 인터넷 여론 조성 작업을 시켰다.”는 한겨레의 보도:하위사실임. 미디어선교사의 역할은 SNS에서 자살, 낙태, 동성애, 음란 등을 막아섬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건강한 성윤리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과 종교적 신앙을 피력한. 또한 기사에 언급된 ‘댓글부대’를 양성한 적이 없고, 이용희 대표를 정점으로 한 기획실에서 가짜뉴스를 만든 적 없음. 에스더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를 설립한 적이 없음. 홀터데이 인터넷 전사 청년 수 십명을 운영한 적 없음. 마치 에스더가 여론이나 조작하는 불량한 단체로 흡입내려는 ‘가짜뉴스’임.

15.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이것은 2017년 9월 개한안의 ‘방명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CBN’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실제뉴스임

* 참조기사 :http://www1.cbn.com/cbnnews/world/2017/october/study-most-violent-rapes-in-sweden-committed-by-men-of-foreign-origin

*관련글: http://www.savemysweden.com/sweden-assault-violence-muslimimmigrants/

16. ‘무슬림 늘어나면 강간을 커진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아래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기관 BRA의 범죄통계에서 1996년과 2005년 보고서에 의하면 무슬림 이민자의 중범죄율은 400-500%가 더 많고, 강간은 450% 더 높음.

* 출처 :https://muslimstatistics.wordpress.com/2015/07/27/a-look-at-statistics-

sweden-a-raped-country/

17. 한겨레TV의 동영상 ‘가짜뉴스 누가 만드나’에서 김완 기자가 사용한 그림듯하게 보이는 ‘3단 연결망 분석’으로 에스더와 관련이 없는 유튜브 채널들과 인물들(전문가들)을 가짜뉴스 유통 또는 생성자로 묶어서 한겨레 보도:

에스더는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동성애 전문 강사들과 관련을 맺고 특정 정보를 나누지 않음. 한겨레 보도는 에스더와 전문강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가짜뉴스’임!

18. 한겨레TV의 ‘가짜뉴스 누가 만드나’에서 김완 기자가 ‘저 그림도 근데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조악하게 서로 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슬람 상징인 모자를 쓴 분이 있고 그림을 붙여놓는데 저런 것이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활용된 것인데 이 부분에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대표가 직접 만든 가짜뉴스들입니다.”라는 한겨레 보도:

이용희 대표는 위에서 보도된 해외뉴스를 직접 다루지 않았고 한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정보를 인용하였음. 이용희 대표가 직접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위사실임

그러므로 한겨레신문 양상우 사장과 탐사기획팀 김완, 박준용, 변지민 기자는 에스더기도운동과 한국교회에 엄청난 사고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에스더기도운동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한겨레가 발표한 전문가그룹은 한겨레신문과 탐사기획팀 김완, 박준용, 변지민 기자 개인별로 민·형사상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을 전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기도운동과 동성애 및 이슬람 관련 전문가들은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선정한 22개 주제에 대하여 탐사기획팀 김완, 박준용, 변지민 기자 등과 빠른 시일 내에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8. 09. 28

에스더기도운동

사설

진정한 평화위해 기도해야

아마도 유카이AEA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22일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영변에서 움직임이 관측되었다”며 “사찰이 이뤄져야 이 활동들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북한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발열기의 가동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치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4차 방북 당시 북측에 IAEA를 통한 영변 핵시설을 제인했고,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IAEA가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산정책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비핵화 협상의 길은 검증부터 시작 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검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최근 무기 실험 지도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의식해서인지 전략무기 개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대남 공격용 전술무기는 증강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보인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선전 훈련장에서 사거리와 위

력이 증가한 것으로보이는 신형 122mm 방사포탄수 발을 발사했다. 평북 영변에 포격·폭격 또는 침투 훈련용으로 추정되는 모형 계류대도 설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방사포 등 장사정 포는 북한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L-SAM 지대공미사일 발사 실험을 2번이나 연기하는등 한국군의 ‘통상적 활동’은 대폭 줄었다.

북한은 한국이 우위인 전력은 남북 협의를 통해 없애게 하고 자신들의 우위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스스로 우위 전력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의 그 어떠한 협상전략도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상누각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 위원장과 함께하는 인민은 행복, 김정은 만세. 서울 평화문에서의외침이라 믿기 어려운 구호가 확실히를 통해짜랑짜랑 울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무효하게 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도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자유민주주의의수호를 위해이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든것을 주관하시는하나님께 간절히기도해야 할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NAP 독소조항 폐기되어야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폐기와 관련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합법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평 교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의 과제가 추진되며, 이 중에 약 5%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는,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가짜인권정책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30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타고난 성(性)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으로,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NAP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가 국제인권규범이 차별금지법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140개국으로 68%를 차지하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

가도 180개국으로 8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구자우 목사는 “정부는 교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으며, 교계와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심각성을 전 교계에 알리며, 하나님의 때에 타이밍을 맞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박요셉 목사는 현 정부는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권 계획에 내용들을 추가하였고,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대통령령으로 발표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압력이 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장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초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앞으로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NAP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전 교계의 결집된 힘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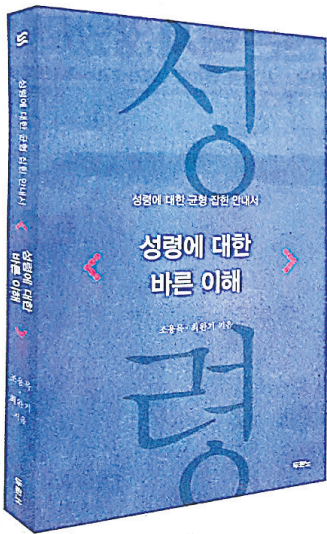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등, 오직 성경을 근거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 시 2019년 1월 7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 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02)2675-5181~3

참 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8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웅재
총무 목사 신재영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8회, 총회목회대학원 제11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제2회)



2017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8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예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예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